

2015년 12월 3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12월 이벤트 관전 포인트, 산타 드라기가 올까?

• 이머징마켓 동향

유동성 공급에 중화권 증시 강세 지속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진도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무역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삼영무역,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엔텍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25(수)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12/2(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9.42	2,030.68	2,028.99	1,991.97	2,023.93	2,009.29	
	등락폭	-6.87	21.26	-1.69	-37.02	31.96	-14.64	
	등락종목	상승(상한)	332(2)	520(2)	387(1)	205(3)	528(3)	286(0)
		하락(하한)	469(0)	298(0)	430(0)	624(0)	288(0)	532(0)
	ADR	82.68	87.34	91.17	87.88	88.51	85.07	
	이격도	10 일	101.26	102.14	101.77	99.67	100.96	100.00
		20 일	100.08	101.15	101.07	99.33	100.99	100.37
	투자심리	5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92	454	482	453	573	624	
	거래대금 (십억 원)	4,256	4,429	4,006	6,538	4,903	4,341	
코스닥	코스닥지수	688.78	693.42	694.21	688.38	691.95	690.32	
	등락폭	0.92	4.64	0.79	-5.83	3.57	-1.63	
	등락종목	상승(상한)	332(6)	520(2)	387(2)	205(4)	528(2)	429(6)
		하락(하한)	469(0)	298(0)	430(0)	624(0)	288(0)	618(0)
	ADR	83.02	87.08	90.04	88.56	89.81	87.88	
	이격도	10 일	101.65	102.02	101.79	100.50	100.73	100.21
		20 일	101.42	102.08	102.12	101.20	101.65	101.38
	투자심리	60	60	70	70	70	70	
	거래량 (백만 주)	864	787	770	639	669	774	
	거래대금 (십억 원)	3,720	3,313	3,078	3,501	3,153	3,54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05.6	904.8	649.8	140.6	108.4	141.3	48.8	13.4	197.334	212.5
	매도	2,485.5	1,223.9	637.7	164.1	70.6	152.1	67.2	9.4	174.4	25.6
	순매수	120.1	-319.1	12.1	-23.5	37.8	-10.8	-18.4	4.0	23.0	186.9
	12월 누계	-92.7	-208.4	59.1	-91.2	74.5	-2.0	3.8	-0.2	74.1	242.0
	15년 누계	912.9	-1,425.8	-3,201.2	-3,683.4	-335.1	-5,204.8	-690.2	-1,090.0	7,802.3	3,714.1
코스닥	매수	3,259.6	191.7	108.6	24.8	12.1	32.2	8.4	3.9	27.3	21.8
	매도	3,259.6	174.4	116.2	31.4	14.9	33.0	5.8	2.1	28.9	31.5
	순매수	-0.1	17.3	-7.6	-6.7	-2.8	-0.7	2.5	1.8	-1.7	-9.7
	12월 누계	12.9	37.9	-37.7	-17.5	-8.9	-9.6	2.6	1.6	-5.9	-13.2
	15년 누계	2,613.9	-598.5	-301.4	-725.9	201.4	514.3	-118.4	-332.0	159.2	-1,714.0

12월 이벤트 관전 포인트, 산타 드라기가 올까?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81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7.5%P

- ▶ 12월 증시에는 다수의 중요 이벤트 대기. 3일 ECB 추가 QE, 16일 미국 FOMC 등
- ▶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음. 기대를 상회하는 정책 나오는지 여부 주목
- ▶ 미국 금리인상은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듯. 추가 금리인상 강도에 대한 힌트가 중요

■ 12월 증시, 다수의 빅 이벤트(Big Event) 대기

12월 증시에는 다수의 중요 이벤트가 대기

“Season's Greetings”. 큰 건물들에 새해인사를 뜻하는 문구들이 걸리고,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종종 눈에 띈다.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나보다.

현실이야 파악하다지만 그래도 연말이면 뜸했던 지인들과 안부 연락도 하게되고, 나름 ‘연말 분위기’도 생기는 때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은 마냥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유난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수 대기하고 있어서다. 오늘 데일리리는 12월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과 해당 이벤트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해봤다.

가장 가까운 12/3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ECB의 QE2다. 유럽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지 채 1년이 안됐지만 이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두달 전부터 이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상당히 높은 만큼, 관전 포인트는 높아진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부양책이 나오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바로 직후인 12/4일에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와 OPEC 회의가 예정돼 있다. 12/16일에 예정된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이미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FOMC를 앞둔 마지막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 관심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유럽의 추가 QE와 미국 금리인상 기대와 맞물려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동반으로 유가 등 상품(Commodity)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신흥국(EM)에서의 자금 이탈 및 외국인의 국내증시 매도와 맞물려 우리에게선 달갑지 않은 요인이다. 12/4일 OPEC 회의 결정에 관심이 많은 이유다. 예상 외의 감산 결정이 나온다면 유가 반등 요인이 되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2/16일에는 대망(?)의 미국 FOMC가 예정되어 있다. 관심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최초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이지만, 이미 시장은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10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 역시 최초 금리인상의 시기가 아니라, 향후 어떤 경로를 통해 금리 정상화 정책을 펼쳐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5년 10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1) 시장이 정책 지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2)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며, 3) 금리 인상을 연기하면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 이후 점진적인 긴축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최초 금리 인상 시점보다는 금리인상 강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이다. 결국 금리인상 여부 보다는 인상 이후 긴축 속도, 즉 내년에 얼마나 빠른 속도와 폭으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며, 시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힌트 찾기에 더 촉각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FED, ECB 등 중앙은행의 주요한 정책변화는 아니지만, 12/11일에는 파리에서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의 종료 예정되어 있다. 교토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파리 프로토콜이 합의에 성공할 경우 투자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 12/3, ECB 회의, “산타 드라기”가 올까?

ECB 추가 양적완화, 포인트는 높아진 시장 기대 상회 여부

10월 이후 드라기 ECB 총재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액션”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전일(12/2) 발표된 유로존 11월 핵심 인플레이(core-inflation)가 예상 외 하락을 기록하면서,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ECB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핵심적인 것은 크게 3가지다. 1) QE의 기간 연장, 2) QE의 월간 자산매입 규모 확대, 3) 추가적인 금리 인하이다.

일단 QE의 기간 연장은 현재 2016년 9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QE 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인데, 6개월 정도의 기간 연장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는 수준이다. 2015년 3월부터 시행한 QE 정책은 매월 600억 유로의 자산을 매입하는 정책이며, 발표 당시 2016년 9월까지 총 1.1조 유로 상당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자산매입 규모가 커지게 된다.

현재 월간 600억 유로인 자산매입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ex. 월간 700억 유로, 혹은 그 이상)은 시장에서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월간 100~150억 유로 이상의 매입규모 확대(월간 750~800억 유로 자산매입) 발표가 나올 경우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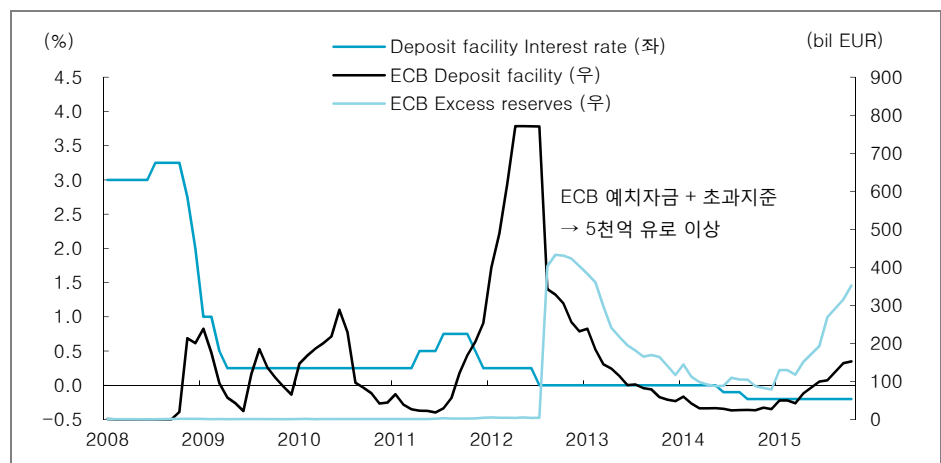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인 repo 금리는 작년 두 차례 인하 이후 2014년 9월부터 0.0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장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준금리보다 현재 -0.2%로 (-) 상태인 ECB 예치금 금리(ECB Deposit facility rate)의 추가 인하에 대한 것이다.

ECB 예치금(ECB Deposit facility)은 유럽 은행들이 초과 유동성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인데, ECB는 이 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2014년 6월 처음으로 (-)로 낮췄다. 즉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초과 유동성에 대해 오히려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 금리 폭의 확대는 이 비용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므로 유동성을 시중에 돌게 하려는 ECB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ECB에 예치된 유럽은행들의 초과 유동성은 앞서의 Deposit facility 예치금과 초과지준(excess reserves)으로 구성되는데, 2011년 말~2012년 초 1, 2차 LTRO 당시 크게 늘어났다가 LTRO 자금 상환으로 다시 감소했고, 2015년 이후 QE 시행과 함께 다시 늘어나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양자를 더한 초과 유동성 합계 금액은 5천억 유로를 상회한다.

(-) 금리 적용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은행들의 중앙은행 자금예치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페널티(penalty) 비용이 커질 경우 ECB의 의도대로 유동성이 시중으로 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시장 예상은 10~15bp 정도인데, 그 이상(-0.4% 이하)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경우 역시 서프라이즈가 될 공산이 있다.

[그림 1] 유럽 은행들의 초과 유동성. ECB Deposit facility + 초과지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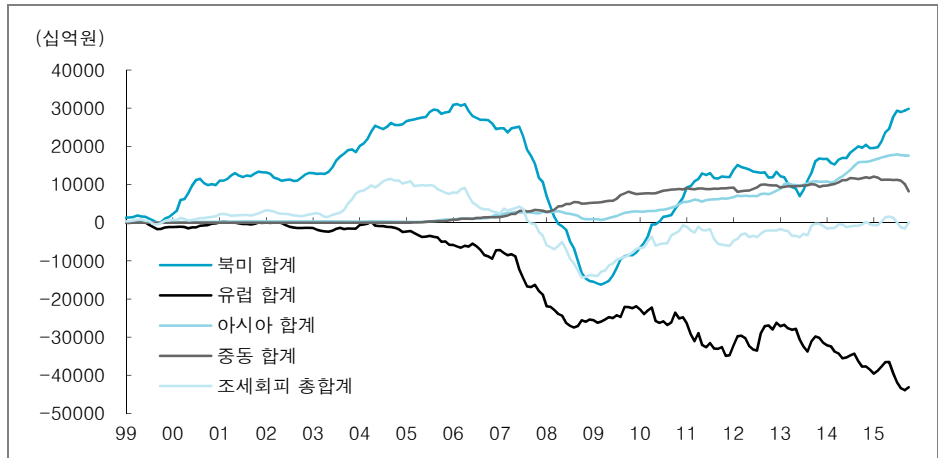


자료: ECB, Bloomberg

ECB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드라기 ECB 총재가 과거에도 중요한 정책결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책을 발표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상을 상회하는 ECB 정책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유로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가 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상품가격이나 EM 자산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기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증시에는 2012년 초 LTRO 당시와 올해 유럽 QE 발표 이후에도 수개월간 유럽계 자금의 KOSPI 순매수가 나타났었는데, 국내증시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2] KOSPI 국적별 순매수 누적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OPEC 회의에서
감산 결정은 어려울 듯

■ 12/4, 미국 고용지표 및 OPEC회의

한국시간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11월 고용지표는 12월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 할 마지막 지표다. 관전포인트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Nonfarm payroll)이 컨센서스인 20만명 증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경우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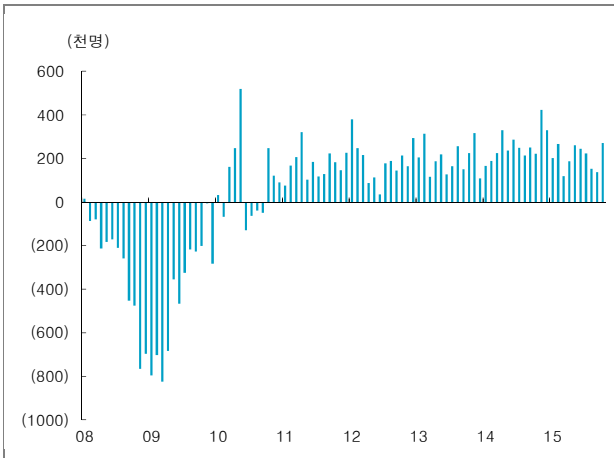
미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 또한 눈여겨 봐야하는 지표다. 10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은 2.5%를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록 호황기 때처럼 3.0~3.5%대의 증가율을 보이기 쉽지는 않았지만 10월 수준의 임금 증가율이 11월에도 유지 된다면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개최되는 168차 OPEC 정기회의 또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바로 이 회의에서 현재 하루 원유생산 목표량인 3,000만 배럴이 감산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회원국들이 감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OPEC이 기존의 산유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OPEC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가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우디가 감산을 결정하더라도 그 자리를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우디와 이란, 이라크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종파적 갈등관계로도 얽여 있다. 중국에는 의미있는 유가반등 없이 점유율만 잃게될 수 있는 감산결정을 사우디가 내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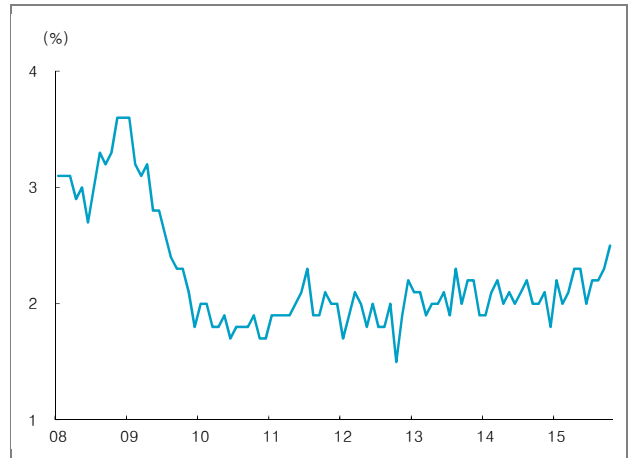
¹ 12/2일 한투 데일리 시황, "OPEC 회의 이후의 시장 분위기", 11/30일 글로벌 투자전략, "멋진 신세계" 참고

[그림 3]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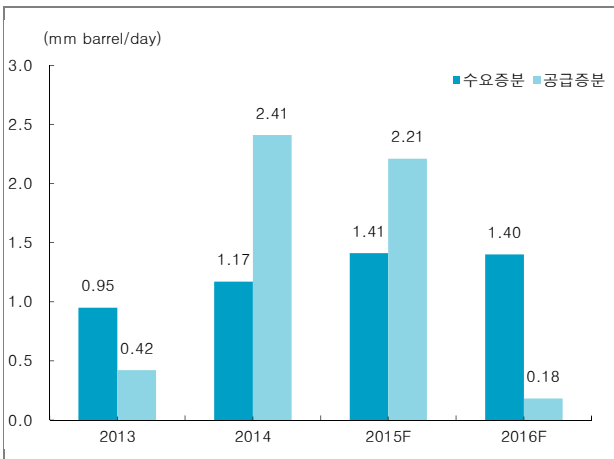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 미국 전년동기대비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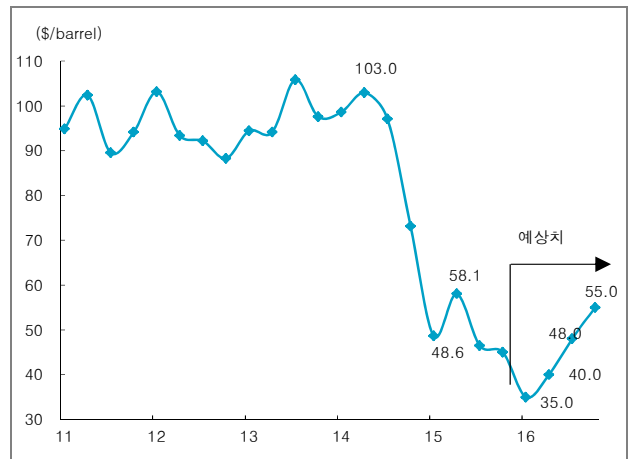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5] 세계 원유 수요, 공급 증분: EIA 데이터 기준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6] WTI 가격 전망치 (한투 예상)



자료: 한국투자증권

■ 12/11, 파리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교토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파리 프로토콜의
합의 여부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해 12월 11일에 종료되는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또한 주목해야 하는 주요 이벤트다. 관련 포인트는 지난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실패했던 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 합의 여부다. 현재 참가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이후의 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라는 대의에는 전세계가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감축의무가 있다는 선진국과 과거 온실가스 증가에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감축 노력이나 재정지원도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협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 교토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파리 프로토콜의 도출에 성공한다면 투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인도와 프랑스가 1조 달러 규모의 국제기금인 ‘국제 태양광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회의 초반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기대가 매우 큰 이벤트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 12/16,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 결정

12월 빅 이벤트 피날레는
16일 미국 FOMC

12월 빅 이벤트의 피날레는 16일 예정된 미국 FOMC다. 단연 시장 관심이 집중된 이벤트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오히려 예상보다 미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시장가격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금리인상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긴축의 속도와 강도다.

아래 표는 최근 연준인사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금리인상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준 내에서도 완전히 의견통합이 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발견할 수 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향후 정상화의 강도는 점진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혼란이 2016년 상반기에 글로벌 증시의 조정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긴축의 속도가 완만하다는 전제가 있다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1> 10월 FOMC 이후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내용

연준 인사	발언 일자	발언 내용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	11 월 12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조만간 충족될 것 -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난 후 그 속도는 매우 점진적(quite gradual)이 될 것 - 7 년간의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금융시장에 왜곡시킬 수 있음 - 경제가 양호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음
피셔 연준 부의장	11 월 19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장래에 주요국가 중앙은행 중 한 곳이 점진적으로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것 -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과 다른 정부를 놀라게 하지 않기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했음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11 월 2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지표들이 계속된다면 12 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strong case)가 될 것 - 금리인상은 계단식 패턴을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 - 경제 성장 관련 긍정적인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 2% 달성에 대한 확신도 커짐
엘런 연준 의장	11 월 23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기 시작할 것이지만 점진적인 속도로 인상할 것 - 경기가 확장하면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를 향해 오를 것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12 월 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수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인상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연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뉴노멀(New Normal)의 특징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될 수 있음 - 통화정책 조정에는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 -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짐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12 월 2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길 원함 - 고용시장이 견조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하진 못함 -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속도가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 - 내년 말 연방기금금리가 1% 아래에 머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

자료: 한국투자증권

유동성 공급에 중화권 증시 강세 지속

- ▶ 상해종합지수 2.3% 상승, 인민은행 MLF 단행, 청약동결자금 해제에 강세
- ▶ 홍콩H지수 1.0% 상승, 본토증시 반등, 추가 경기부양 조치 발표 기대감에 강세
- ▶ 자카르타종합지수 0.3% 하락, 팜 오일 가격 하락 및 외국자본 유출 우려에 약세
- ▶ VN지수 0.7% 상승, 세계은행의 베트남 경제 회복에 관한 긍정적 발언에 힘입어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2.3% 상승, 보험, 증권, 은행, 에너지 등의 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2.3% 급등한 3,537p로 마감하며 다시 3,500선을 상회했다. 소폭 하락 출발한 증시는 오전에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3,692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과 비슷했다. 인민은행이 MLF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유동성을 지속 공급했고 5개월 만에 증권 예수금 순유입액이 최근 2개월간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개선됐다. 또한 월요일 청약 동결 자금이 2일 해제되면서 최근 낙폭이 컸던 저평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보험(8.4%), 증권(6.0%), 은행(4.5%), 에너지(2.8%) 등 업종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지수 강세를 견인했고 부동산 업종은 직전일에 이어 개인소득세 공제 이슈로 강세를 나타냈다. 그 외 전자재, 공정건설, 항공, 전력, 가전, 양조, 석탄 등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가격 상승폭이 컸던 차스닥 지수는 1.6%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들도 순매도세를 보였다.

홍콩H지수 1.0% 상승, 보험, 시멘트, 증권, 부동산 등의 업종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본토증시의 강세에 동조하며 1.0% 상승한 10,050p로 마감했다. 유럽의 양적완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출발한 증시는 오전에 약세로 전환했다가 오후에 본격적으로 반등폭을 확대했다. 11월의 경기 지표 부진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고 중국 증시의 반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최근 낙폭이 컸던 보험주가 급등했고 시멘트, 증권, 부동산, 은행 등 업종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음식료, 보험, 전력주는 하락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0.3% 하락, 헬스케어, 음식료, IT, 소비재 등의 업종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3% 하락한 4,546p로 기록했다. ECB의 양적완화 기대감에 강세로 출발한 지수는 팜 오일 선물 가격 하락에 약세로 전환했다. 특히 이번주 들어 해외자본이 빠르게 유출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헬스케어, 음식료, IT, 소비재, 원자재 등 업종이 약세였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7% 상승,
소재, 소비재, 금융, 음식료,
금융 등 대부분 업종 강세

VN지수는 0.7% 상승한 574p로 마감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직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최근 들어 약세를 이어가며 570선을 위협한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긍정적인 발언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휴대폰 유통업체 MWG, 최대 유제품업체 VNM, 대형은행 VCB 등 대부분 대형주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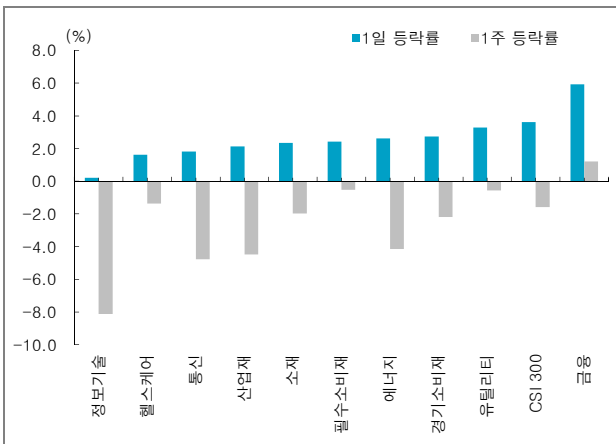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사회과학원, 현행 여성 50세, 남성 60세 정년을 2045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연장건의 상무부, 1~10월 중국기업 일대일로 인접 49개 국가에 131.7억 달러 직접투자(YoY 36.7%) 상무부, 요식업, 숙박업, 세탁업 등 8개 주민생활 서비스산업 발전 강조
인도	중앙은행, 12월 첫째 주 기준을 4.0% (컨센서스 4.0%, 직전치 4.0%)
인도	중앙은행, 12월 첫째 주 재할인을 6.75% (컨센서스 6.75%, 직전치 6.75%)
브라질	통계국, 11월 무역수지 11억 9,700만 달러 (컨센서스 12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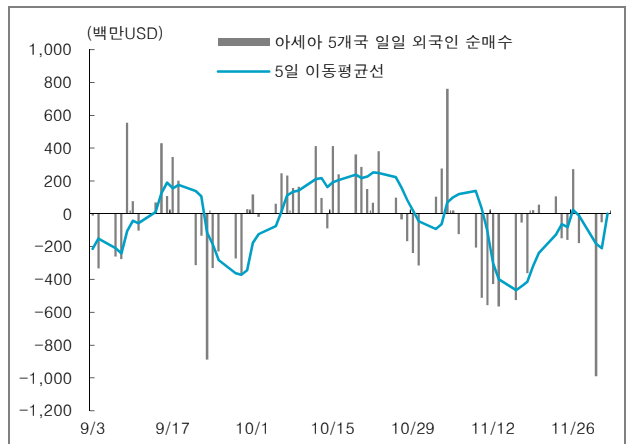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2/2(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536.91	2.33	-3.04	2.66	9.34
홍콩 H	10,050.36	1.03	-0.77	2.65	-16.14
중국 차스닥	2,613.26	-1.58	-9.81	-2.22	77.56
인도 SENSEX	26,081.90	-0.33	1.19	-0.24	-5.15
인도네시아 JCI	4,545.86	-0.26	-0.87	2.24	-13.03
태국 SET	1,342.56	-1.06	-2.82	-1.26	-10.36
베트남 VN	574.42	0.70	-3.57	0.21	5.28
MSCI 이머징마켓	825.48	1.37	-1.28	1.37	-13.68

주: 2일 오후 6시 05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 2,010P선 하회

- 미국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1%안팎의 강세로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하루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며 하락을 주도, 2,010P선 아래로 밀려나며 마감.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장 막판 하락 반전하며 소폭 내림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신제품을 기반으로 내년도 고성장 지속 전망에 바디텍메드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중국 자동차 제조사와의 합작사 설립 소식에 서진오토모티브가 상한가를 기록. 중국 정적 분석도구 시장이 진출 소식에 파수닷컴도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에 한솔신택이 신고가를 경신.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최 소식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임. 반면,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의 분쟁으로 중국 면세점사업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며 엔에스브이가 급락했으며, 실적 악화 우려가 지속되며 삼성엔지니어링이 신저가를 기록

종목/이슈	내용
바디텍메드(206640) ▶2,920(+5.61%)	신제품 기반 고성장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 - 내년 아이크로마와 대장암 사전 스크리닝 테스트인 iFOB 등 신제품을 기반으로 한 고성장 지속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 -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사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8.1%, 영업이익 성장률은 51.7%을 기록
서진오토모티브(122690) ▶4,410(상한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와의 합작기업 설립 소식에 상한가 - 중국 2위 자동차 제조사인 동풍자동차그룹 계열의 동풍실업유한공사와 변속기 클러치, 플라이 휠 등의 제품 개발, 판매 및 시장 확대를 위해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자회사인 에코플라스틱(038110)과 동반 상한가 - 자본금은 양사가 50대 50의 비율로 출자할 계획이며, 동풍실업은 동사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됨
태양광 관련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막 소식에 강세 -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 태양광 연합’을 결성해 기금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강세. 미국과 중국 등 121개 참여국들은 태양 에너지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혁신적이고 일치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세계 신규 태양광 개발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 - 네오이녹스엔모크스(037340, +26.01%), 웅진에너지(103130, +20.74%), 에스에프씨(112240, +8.05%), 신성솔라에너지(011930, +7.23%), 에스에너지(095910, +4.98%), OCI(010060, +4.96%), 넥솔론(110570, +3.28%)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용
한솔신택(099660) ▶2,495(+7.54%)	- 향후 CFBC(순환유동충발전 보일러) 시장이 연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일진머티리얼즈(020150) ▶10,300(+10.75%)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에 따른 내년도 실적 성장 및 자회사 일진엘디의 적자 부담도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주성엔지니어링(036930) ▶7,500(+1.49%)	- LG디스플레이의 신규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진도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진도 (088790)	6,190 (+14.0)	5,430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며 모피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중국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진출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메르스 여파로 3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중국인 구매 증가와 성수기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뷰웍스 (100120)	39,950 (+5.8)	37,750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X-ray 장비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FP-DR(Flat Panel Detector)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지속 예상 - 글로벌 완제품 업체로의 납품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용 TDI(Time Delayed Inspection) 카메라, 치과용 FP-DR, 동영상 FP-DR 등 신제품 매출 확대에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홍국에프엔비 (189980)	31,500 (-12.1)	35,850 (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농축액, 착즙주스 등 프리미엄 식음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카페프랜차이즈 확산과 함께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카페/외식 식부자재 관련 종합유통회사로 도약 기대 - 2013년 SPC그룹과 중국에 동반 진출한 가운데 중국 로컬 프랜차이즈사로의 공급 확대 등 중국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엔씨소프트 (036570)	215,500 (+10.5)	195,000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PC 게임 실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수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출시 모멘텀 내재 - 신작 출시 공백으로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로 계단식 이익 개선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오버행 이슈의 주가 반영과정 일단락, 향후 우호적 주주이익환원 정책 예상
LG전자 (066570)	53,900 (+14.7)	47,000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전장 사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장기 성장동력 구축 전망 - V10과 Nexus 5X 등 스마트폰 라인 다양화, 가전 및 TV 부문의 경쟁력, 환율 상승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 - 휴대폰 부문의 부진을 감안해도 PBR 0.7배 수준은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더존비즈온 (012510)	21,650 (+3.8)	20,850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 -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무역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영무역 (002810)	21,150 (-0.9)	21,350 (11/26)	23	4	26	1,612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근시안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계열사인 케미그라스가 4개의 생산라인을 통해 연간 6천만장의 렌즈 생산능력을 보유 - 베트남 생산공장(Chemilens Vietnam)은 2016년부터 글로벌 1위 안경렌즈 업체인 프랑스 에실로의 아시아 시장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 지속적인 R&D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 지속 예상 				
롯데칠성 (005300)	2,230,000 (-3.8)	2,319,000 (9/23)	2,407	177	118	86,667	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시장의 저도화와 다양화 추세를 주도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맥주(Kloud)사업 성장과 향후 계열사 지분 및 서초동 부지 가치 현실화에 대한 기대 유효 - 음류와 주류시장의 성장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 부각 가능성 				
SK텔레콤 (017670)	233,500 (-5.1)	246,000 (9/07)	17,169	1,849	1,800	25,027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가능성, 배당금 증액 가능성 등 주주우선시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비통신사업의 성장성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트래픽 증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으로 3분기 수익성 개선 예상. 방통위 제지(10월1일~7일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현대위아 (011210)	123,000 (+17.1)	105,000 (9/03)	8,022	502	415	15,616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자동차 수요 둔화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감소로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설과 점유율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엔진 믹스 개선과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성장성,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00,000 (+19.4)	1,089,000 (9/01)	197,087	26,512	19,497	143,876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IT제품 수요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 20나노공정 비중이 4분기 7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세 지속 예상 - 하반기 시스템LSI부문의 실적 개선, 역사적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 우호적인 환율 환율, 주주환원정책 실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도 제고 가능성 상존 				
강원랜드 (035250)	39,800 (-3.9)	41,400 (7/31)	1,649	591	461	2,274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둔화보다는 성수기 진입, 테이블 증설효과, 가동률 상승효과, 인력확충 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과 배당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 평창올림픽 개최, 워터월드 사업,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 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강원랜드, 삼성전자, 현대위아, SK텔레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삼영무역(002810)

매수(신규)

목표가: 31,000원

종가(11/30): 21,650원

베트남에서 제 2의 도약을 준비하다

■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1,000원 제시

삼영무역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1,000원을 제시한다. 적정시가총액은 지분율을 고려한 자회사 에실로코리아의 영업가치 4,030억원과 본사 영업가치 210억원에 본사 순현금 800억원을 합산해 5,040억원으로 산출했다. 투자 포인트는 1)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안경렌즈 산업의 성장성, 2) 중국의 소득증가와 고부가가치 렌즈 수요 증가, 3) 베트남생산법인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4) 순현금 800억원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등이다.

■ 계열사를 통해 안경렌즈 제조업 영위

삼영무역 본사는 화공약품 및 플라스틱렌즈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과 경기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위축 등으로 본사는 매출은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됐다. 하지만 안경렌즈 계열사인 에실로코리아의 영업이익은 과거 5년간 연평균 11%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6%에 달한다. 지분법이익이 전체 세전이익의 74%에 달해 사실상 안경렌즈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베트남, 글로벌 안경렌즈 생산기지로 도약

2014년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생산법인은 가동률이 낮아 1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순손실이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가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해 생산단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TPP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전략적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생산법인은 계열사인 에실로코리아와 케미그라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삼영무역의 증장기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66	4	20	1,255	(8.7)	5	12.5	41.6	1.1	9.3	0.8
2014A	265	5	22	1,342	6.9	6	17.8	53.8	1.6	9.2	0.8
2015F	228	3	22	1,380	2.9	4	15.3	66.0	1.3	8.7	0.9
2016F	231	4	27	1,703	23.4	4	12.4	62.8	1.2	9.9	1.1
2017F	239	4	30	1,896	11.3	4	11.2	60.3	1.1	10.1	1.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2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지역난방공사(071320)

중립(유지)

종가(12/1): 60,900원

외형 정체 1~2년 더 지속될 듯

■ 주가 상승 모멘텀 부재. '중립' 의견 유지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열과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비중은 열 판매가 51%, 전기 판매가 45%다. 열 판매부문은 원칙적으로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적정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이며, 전기 판매는 전력시장 수급여건에 따라 이익이 증감한다. 열 판매 가격이 유지된 가운데 LNG 구입가격이 급락한 영향으로 올해 이익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데다, 4분기 실적 전망도 좋는데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2016년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설비용량이 2017년까지 늘어나지 않아 열 판매 매출 및 이익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 수급여건에 의존해야 하는 전기판매부문은 향후 2~3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원전+석탄) 비중이 높아져 난방공사처럼 LNG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여건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 아직 알쏭달쏭한 열요금 원가연동제

정부는 그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열 요금제도를 개편,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열 요금을 도시가스요금이 바뀌는 것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다.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원칙이 잘 적용될 경우) 난방공사의 열 판매부문 이익은 판매량과 가격에 관계없이 고정된다는 의미다. 열 생산 및 판매에 투입되는 고정비에 대해서는 적정 마진을 얹어 회수하도록 보장해 주고, 변동비(대부분 LNG 구입비용)가 변하는 부분은 판매가격에 100% 반영해 주는 것이 총괄원가 보상제도의 취지다.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열 요금이 변경된 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난방공사는 올해 LNG 구입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열 판매요금이 인하되지 않아 전기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내년에는 LNG 구입가격이 추가 하락할 여지가 크지 않은 가운데 열 판매요금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 전기판매부문 - 판매가격 더 하락할 수 있어

난방공사가 판매하는 전기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전력수급여건이 악화되면 판매가격이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 내려간다.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준공 일정을 보면 2018년까지 발전변동비가 저렴한 기저발전(원전+석탄)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지역난방공사처럼 LNG 발전기를 갖고 있는 사업자의 발전기 이용률이 한동안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지역난방을 포함한 분산형 전원정책을 장려하고 나섰고,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내년에도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우호적인 제도 변경도 예상되나 선불리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658	213	116	9,998	(24.4)	431	8.6	8.1	0.6	7.3	3.5
2014A	2,369	86	66	6,105	(38.9)	291	9.2	9.6	0.4	4.1	3.8
2015F	2,021	190	99	8,592	40.7	399	7.1	7.3	0.4	5.9	2.2
2016F	2,012	121	43	3,680	(57.2)	333	16.5	9.0	0.4	2.5	0.9
2017F	2,078	118	40	3,485	(5.3)	338	17.5	9.1	0.4	2.3	0.5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2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포스코엠텍(009520)

중립(유지)

종가(12/1): 2,700원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

■ 포스하이알 청산으로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만...

지난 11월 30일 포스코엠텍은 자회사인 포스하이알(지분율 51%, 고순도 알루미늄 제조)에 대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제 포스하이알은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청산가치가 장부상 포스하이알 잔존가액 23억원보다 낮을 경우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포스하이알은 2014년에만 1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했다. 이번 청산 결정으로 영업 적자 구조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에도 구조조정 이어지며 매출액이 감소

이제 의미있는 사업은 철강 포장과 철강 부원료 사업이 남게 된다. 철강 포장은 연간 1,600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액이 보장된다. 그러나 철강 부원료 사업은 2016년에도 외형 축소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제조를 제외한 상품 거래 사업을 축소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매출액이 3,550억원으로 9.3% 감소할 전망이다. 포스코엠텍은 매출액은 2012년 9,590억원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 과거와 현재의 세금 문제도 아직 미정

2011~2012년에 걸친 세금 추정액 435억원에 대한 조세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 연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3년에 대한 세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사안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사업 행태에 대한 것이어서 2011~2012년에 대한 세금 추정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대해서도 세금 추정 가능성이 있다.

■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시기, 투자의견 '중립' 유지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POSCO 그룹의 소재 사업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계에선 사업 구조조정 비용 제거와 적자 사업 정리를 통한 실적의 정상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주가의 상승을 위해선 정상화보다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하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700	4	(13)	(495)	NM	10	NM	41.8	0.2	(8.4)	1.1
2014A	446	(25)	(99)	(239)	NM	(14)	NM	NM	0.3	(100.6)	2.6
2015F	391	4	(0)	(4)	NM	15	NM	17.0	2.5	(0.4)	2.8
2016F	355	13	8	195	NM	24	13.8	10.9	2.3	17.5	2.8
2017F	383	16	11	256	31.1	28	10.5	9.5	2.0	20.2	2.8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2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25(수)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12/2(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9.42	2,030.68	2,028.99	1,991.97	2,023.93	2,009.29	
	등락폭	-6.87	21.26	-1.69	-37.02	31.96	-14.64	
	등락종목	상승(상한)	332(2)	520(2)	387(1)	205(3)	528(3)	286(0)
		하락(하한)	469(0)	298(0)	430(0)	624(0)	288(0)	532(0)
	ADR	82.68	87.34	91.17	87.88	88.51	85.07	
	이격도	10 일	101.26	102.14	101.77	99.67	100.96	100.00
		20 일	100.08	101.15	101.07	99.33	100.99	100.37
	투자심리	5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92	454	482	453	573	624	
	거래대금 (십억 원)	4,256	4,429	4,006	6,538	4,903	4,341	
코스닥	코스닥지수	688.78	693.42	694.21	688.38	691.95	690.32	
	등락폭	0.92	4.64	0.79	-5.83	3.57	-1.63	
	등락종목	상승(상한)	332(6)	520(2)	387(2)	205(4)	528(2)	429(6)
		하락(하한)	469(0)	298(0)	430(0)	624(0)	288(0)	618(0)
	ADR	83.02	87.08	90.04	88.56	89.81	87.88	
	이격도	10 일	101.65	102.02	101.79	100.50	100.73	100.21
		20 일	101.42	102.08	102.12	101.20	101.65	101.38
	투자심리	60	60	70	70	70	70	
	거래량 (백만 주)	864	787	770	639	669	774	
	거래대금 (십억 원)	3,720	3,313	3,078	3,501	3,153	3,544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05.6	904.8	649.8	140.6	108.4	141.3	48.8	13.4	197.334	212.5
	매도	2,485.5	1,223.9	637.7	164.1	70.6	152.1	67.2	9.4	174.4	25.6
	순매수	120.1	-319.1	12.1	-23.5	37.8	-10.8	-18.4	4.0	23.0	186.9
	12월 누계	-92.7	-208.4	59.1	-91.2	74.5	-2.0	3.8	-0.2	74.1	242.0
	15년 누계	912.9	-1,425.8	-3,201.2	-3,683.4	-335.1	-5,204.8	-690.2	-1,090.0	7,802.3	3,714.1
코스닥	매수	3,259.6	191.7	108.6	24.8	12.1	32.2	8.4	3.9	27.3	21.8
	매도	3,259.6	174.4	116.2	31.4	14.9	33.0	5.8	2.1	28.9	31.5
	순매수	-0.1	17.3	-7.6	-6.7	-2.8	-0.7	2.5	1.8	-1.7	-9.7
	12월 누계	12.9	37.9	-37.7	-17.5	-8.9	-9.6	2.6	1.6	-5.9	-13.2
	15년 누계	2,613.9	-598.5	-301.4	-725.9	201.4	514.3	-118.4	-332.0	159.2	-1,714.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8,438	금융업	-8,966
유통업	4,808	은행	-4,321
전기,전자	2,974	제조업	-3,670
NAVER	4,343	신한지주	-7,157
SK하이닉스	3,994	아모레퍼시픽	-5,108
S-Oil	3,216	기업은행	-4,321
CJ제일제당	2,913	엔씨소프트	-2,641
삼성생명	2,401	BNK금융지주	-2,454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4,613	금융업	-7,757
철강및금속	12,722	보험	-6,000
화학	8,013	전기가스업	-3,330
POSCO	7,669	두산	-3,825
NAVER	7,352	삼성생명	-3,543
아모레퍼시픽	5,207	LG화학	-3,288
현대제철	4,775	한국전력	-2,668
삼성전자	4,109	신한지주	-2,38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300	건설업	-1,141
화학	1,836	금융업	-437
의약품	803	통신업	-409
삼성전자	1,755	KODEX 인버스	-1,343
KODEX 레버리지	1,450	SK	-810
TIGER 200	1,239	남광토건	-752
한미약품	760	신한지주	-373
TIGER 경기방어	707	TIGER 중국소비테마	-37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2,761	은행	-1,849
서비스업	9,492	음식료품	-1,751
전기,전자	6,052	통신업	-790
삼성전자	10,742	ARIRANG 200	-3,995
삼성생명	10,306	LG전자	-2,758
한미약품	3,397	CJ제일제당	-2,117
삼성화재	3,337	코라오홀딩스	-2,036
GKL	2,897	기업은행	-1,86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43,565	전기,전자	-20,208
유통업	14,564	금융업	-17,174
철강및금속	13,479	건설업	-12,157
KODEX 인버스	17,663	KODEX 레버리지	-33,741
NAVER	13,036	삼성전자	-12,742
삼성생명	8,244	신한지주	-10,946
한미사이언스	7,355	현대산업	-9,660
POSCO	7,172	BNK금융지주	-8,685
호텔신라	6,871	기업은행	-7,122
GKL	6,314	코라오홀딩스	-6,426
효성	6,020	KODEX 200	-6,262
아모레G	5,886	한국전력	-6,020
OCI	5,036	롯데칠성	-5,003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5,434	전기,전자	-191,292
건설업	2,461	서비스업	-31,917
의료정밀	2,130	운수장비	-25,615
아모레퍼시픽	20,950	삼성전자	-103,801
LG생활건강	5,731	삼성전자우	-48,612
KODEX 200	4,212	SK하이닉스	-19,524
현대산업	4,037	NAVER	-14,655
TIGER 200	3,898	POSCO	-12,989
코라오홀딩스	3,250	한화케미칼	-11,527
신한지주	3,181	현대모비스	-11,211
KODEX 레버리지	3,031	삼성SDI	-10,684
롯데케미칼	2,930	LG화학	-8,225
하나투어	2,924	삼성전기	-7,93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3,555	오락,문화	-1,808	계약	3,934	전문기술	-3,945
통신장비	2,684	전문기술	-1,357	출판,매체복제	1,148	오락,문화	-3,096
반도체	1,898	금융	-1,113	인터넷	1,104	연구,개발	-2,295
카카오	3,558	한국토지신탁	-1,113	메디톡스	2,738	CJ E&M	-4,413
한양하이타오	1,410	NICE평가정보	-1,021	카카오	1,104	파라다이스	-3,276
셀트리온	1,315	쇼박스	-975	셀트리온	830	바이로메드	-2,137
코스온	937	에스엠	-834	NICE평가정보	742	OCI머티리얼즈	-533
원익IPS	837	제이콘텐츠리	-833	인트론바이오	697	서부T&D	-49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937	일반전기전자	-259	통신장비	1,282	출판,매체복제	-4,287
화학	461	디지털컨텐츠	-212	의료,정밀기기	1,127	연구,개발	-2,809
소프트웨어	401	음식료,담배	-192	운송장비,부품	817	금융	-515
메디톡스	492	에이치엘비	-259	한양하이타오	1,255	에스엠	-4,287
셀트리온	422	매일유업	-193	오스템임플란트	955	바이로메드	-2,809
이엔에프테크놀로지	390	컴투스	-189	코다코	790	한국토지신탁	-513
한글과컴퓨터	377	원익QnC	-113	에코프로	605	리드코프	-464
카카오	245	NICE평가정보	-98	웨이브일렉트로	507	OCI머티리얼즈	-39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8,548	전문기술	-6,356	전문기술	12,536	연구,개발	-8,387
계약	6,642	연구,개발	-6,045	계약	7,866	방송서비스	-2,705
통신장비	4,815	오락,문화	-5,208	의료,정밀기기	6,096	기계,장비	-2,161
카카오	8,554	바이로메드	-5,301	메디톡스	10,899	바이로메드	-8,725
셀트리온	3,426	CJ E&M	-5,107	CJ E&M	9,179	셀트리온	-4,742
메디톡스	3,344	파라다이스	-3,828	인바디	5,742	코미팜	-2,891
한양하이타오	2,999	에스엠	-3,805	컴투스	4,127	파트론	-1,861
오스템임플란트	2,246	한국토지신탁	-2,099	카카오	3,688	유니테스트	-1,846
코스온	1,905	쇼박스	-1,301	에스엠	3,397	JW중외신약	-1,586
GS홈쇼핑	1,336	리드코프	-1,223	네오이녹스엔모크스	2,990	GS홈쇼핑	-1,372
인트론바이오	1,174	동화기업	-1,136	제이콘텐츠리	2,405	CJ오쇼핑	-1,233
게임빌	1,127	매일유업	-1,053	씨젠	2,390	NICE평가정보	-1,057
코다코	1,051	컴투스	-940	인터파크홀딩스	1,881	오스템임플란트	-1,03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화재	20 일	금호전기	12 일
POSCO	16 일	송원산업	12 일
NH투자증권	13 일	대한유화	12 일
한화	12 일	오뚜기	10 일
LG	12 일	현대산업	10 일
삼성생명	12 일	한국철강	10 일
두산중공업	12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8 일
두산인프라코어	12 일	한솔테크닉스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크레듀	26 일	휴맥스	12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21 일	매일유업	11 일
GS홈쇼핑	10 일	인터파크홀딩스	10 일
실리콘웍스	10 일	CJ E&M	8 일
평화정공	8 일	아미노로지스	7 일
CJ오쇼핑	6 일	아트라스BX	6 일
루멘스	5 일	신화인터텍	5 일
포스코켄텍	4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37,106	LG디스플레이	49,856
삼성전자	33,393	아모레퍼시픽	41,158
POSCO	32,973	KT	35,511
현대차	32,297	LG생활건강	25,647
삼성화재	24,868	삼성SDI	21,476
삼성생명	23,635	한솔테크닉스	21,246
현대제철	18,495	오뚜기	19,754
고려아연	17,985	삼성에스디에스	15,164

KOSDAQ			
기	관	외	국 인
OCI머티리얼즈	17,443	인바디	10,992
GS홈쇼핑	10,469	제이콘텐트리	5,981
코스온	7,539	인터파크홀딩스	5,249
CJ프레시웨이	5,609	오스템임플란트	4,955
한양하이타오	4,974	네오이녹스엔모크스	4,503
CJ오쇼핑	4,659	아모텍	4,273
제이콘텐트리	4,257	한양하이타오	2,991
게임빌	3,710	바이넥스	2,34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화학		9,050	5,434
아모레G		5,886	1,206
OCI		5,036	548
현대제철		4,504	728
CJ CGV		1,841	1,135
하이트진로		174	2,221
화승인더		511	1,514
오리온		1,076	904
코오롱인더		1,679	78
SK케미칼		300	1,352
롯데쇼핑		911	509
합	계		
			14,484

KOSDAQ			
종	목	기	관
제약		6,642	7,866
인터넷		8,548	3,612
통신장비		4,815	3,219
메디투스		3,344	10,899
카카오		8,554	3,688
인바디		663	5,742
한양하이타오		2,999	1,038
인트론바이오		1,174	1,774
제이콘텐트리		394	2,405
씨젠		131	2,390
코오롱생명과학		387	869
코나아이		821	235
주성엔지니어링		184	734
합	계		
			14,50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한진중공업	23 일	삼성화재	21 일
한국전력	17 일	삼성물산	20 일
한화화인케미칼	15 일	LG	12 일
BNK금융지주	15 일	휴캠스	11 일
오뚜기	12 일	서연	9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1 일	LF	9 일
KOSEF 달려선물	10 일	대한항공	8 일
조선내화	9 일	한국가스공사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코미팜	11 일	GS홈쇼핑	13 일
우주일렉트로	10 일	파라다이스	10 일
다산네트웍스	6 일	성광벤드	9 일
CJ E&M	6 일	평화정공	7 일
매일유업	5 일	메디포스트	6 일
아트라스BX	5 일	KCC건설	5 일
한국토지신탁	5 일	원익IPS	5 일
인터파크홀딩스	5 일	이오테크닉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51,726	삼성전자	-378,308
신한지주	-38,731	삼성전자우	-144,164
BNK금융지주	-28,387	SK하이닉스	-61,807
KT	-26,534	POSCO	-54,240
현대산업	-24,344	현대차	-40,395
LG생활건강	-21,930	삼성화재	-36,076
한국전력	-20,861	삼성생명	-31,555
오뚜기	-19,452	LG화학	-23,61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카카오	-33,288	셀트리온	-28,051
CJ E&M	-29,492	카카오	-11,769
한국토지신탁	-10,739	GS홈쇼핑	-7,703
서울반도체	-9,989	NICE평가정보	-6,487
KH바텍	-6,695	코미팜	-5,498
에스엠	-6,449	파라다이스	-4,931
인터파크홀딩스	-5,524	삼성엘엔에스	-4,051
파라다이스	-5,180	게임빌	-3,21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0,208	-191,292 -211,501
금융업		-17,174	-4,585 -21,759
전기가스업		-7,214	-9,736 -16,950
삼성전자		-12,742	-103,801 -116,543
삼성전자우		-3,712	-48,612 -52,324
한국전력		-6,020	-7,229 -13,249
삼성SDI		-1,567	-10,684 -12,250
LG화학		-2,574	-8,225 -10,799
삼성전기		-884	-7,930 -8,814
한미약품		-1,329	-5,419 -6,747
롯데칠성		-5,003	-1,299 -6,302
SK텔레콤		-3,481	-1,719 -5,199
KT&G		-2,350	-2,303 -4,65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연구,개발		-6,045	-8,387 -14,432
IT부품		-1,700	-1,476 -3,176
도매		-2,128	-726 -2,854
바이오메드		-5,301	-8,725 -14,026
파라다이스		-3,828	-593 -4,422
코미팜		-546	-2,891 -3,436
유니테스트		-143	-1,846 -1,989
파트론		-17	-1,861 -1,879
NICE평가정보		-695	-1,057 -1,751
JW중외신약		-2	-1,586 -1,588
동원개발		-629	-778 -1,407
씨티씨바이오		-479	-819 -1,298
리드코프		-1,223	-4 -1,22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아모레퍼시픽	21	8,558	
LG디스플레이	339	8,491	
엔씨소프트	31	6,953	
현대모비스	26	6,413	
기아차	104	5,754	
삼성전자	4	5,136	
삼성증권	92	4,103	
GS리테일	73	3,98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4	11,640	
CJ E&M	33	2,764	
코오롱생명과학	10	2,301	
바이로메드	11	2,044	
대화제약	39	1,760	
카카오	12	1,437	
아가방컴퍼니	127	1,360	
코미팜	24	1,186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108	4,106,247	
호텔신라	11,236	1,028,079	
현대차	6,425	983,003	
현대중공업	10,583	966,234	
한미약품	995	760,311	
SK하이닉스	21,970	688,764	
신한지주	15,945	666,512	
삼성중공업	53,148	621,83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1,148	1,850,463	
카카오	6,081	726,096	
CJ E&M	666	551,342	
바이로메드	1,318	283,797	
위메이드	1,324	246,144	
파라다이스	9,768	196,335	
코미팜	3,447	173,390	
동서	4,500	162,90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6,686	운수장비	-9,061
종이, 목재	2,177	기계	-4,314
통신업	907	화학	-3,336
BNK금융지주	6,405	대우조선해양	-5,186
한솔홀딩스	2,317	두산인프라코어	-3,699
SK증권	1,070	삼성중공업	-2,687
하나금융지주	818	한화케미칼	-2,424
한국전력	755	기업은행	-1,123
한화생명	661	동부하이텍	-880
메리츠증권	549	KODEX 200	-865
금호타이어	543	SK하이닉스	-855
마니커	536	우리금융	-793
KT	504	팬오션	-65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1,391	화학	-552
미분류	709	비금속	-538
금융	609	IT부품	-407
셀트리온	777	포스코컴텍	-515
에스앤씨엔진그룹	524	서희건설	-488
코미팜	400	인터파크홀딩스	-450
카카오	374	에코프로	-376
동원개발	367	한진피앤씨	-313
한국토지신탁	299	파라다이스	-308
텍셀네트컴	278	동서	-210
포스코 ICT	261	서울반도체	-168
코다코	247	현진소재	-167
OCI머티리얼즈	241	이니텍	-163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12/2(수)
외국인	-1,425.8	-208.4	-713.5	64.3	-30.0	-539.4	110.7	-319.1
기관계	-3,201.2	59.1	294.4	159.9	21.3	54.1	47.0	12.1
(투신)	-5,204.8	-2.0	-52.3	-30.7	-25.6	6.0	8.8	-10.8
(연기금)	8,434.7	70.7	230.2	74.7	4.2	80.7	47.5	23.1
(은행)	-1,090.0	-0.2	-27.9	-15.6	-6.6	-5.6	-4.2	4.0
(보험)	-335.1	74.5	187.9	66.6	30.5	16.4	36.7	37.8
개인	912.9	-92.7	-153.5	-290.3	-136.4	366.0	-212.8	120.1
기타	3,714.1	242.0	572.6	66.1	145.1	119.3	55.1	186.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11/25(수)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KOSPI	1,997.1	2,011.3	1,915.6	2,009.4	2,030.7	2,029.0	1,992.0	2,023.9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1,854.3	20,846.4	20,845.5	20,765.0	21,386.0
(증감액)	334.1	-3,802.5	1,630.7	961.6	-1,007.9	-0.9	-80.5	621.0
(회전율)	26.7	29.9	34.0	36.5	37.1	34.0	48.3	37.7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753.5	-1,174.7	46.6	-400.1	483.8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172.9	3,172.5	3,186.4	3,187.6	3,171.7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533.6	3,533.5	3,543.8	3,558.7	3,563.0
미수금	1,241.0	929.0	1,176.0	118.0	160.6	117.6	114.5	108.5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25(수)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전체 주식형	80,683	-480	123	-10	57	-36	60	123
(ex. ETF)		-872	34	-80	-4	-11	-52	34
국내 주식형	62,826	-1,443	114	-4	51	-69	36	114
(ex. ETF)		-1,813	26	-73	-10	-44	-76	26
해외 주식형	17,858	963	9	-7	6	33	24	9
(ex. ETF)		942	9	-7	6	33	24	9
주식 혼합형	8,116	-1,413	-8	-80	-19	-6	-1	-8
채권 혼합형	30,870	2,851	-83	-11	-32	4	-6	-83
채권형	86,705	11,382	-54	-20	-16	1	-68	-54
MMF	99,647	15,687	-4	-1,681	1,611	-369	-867	-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12/2(수)
한 국	-619	-166	-601	56	-26	-465	96	-262
대 만	2,774	275	-121	296	-101	-591	261	14
인 도	3,239	0	-396	-40	-69	-287	-	-
인도네시아	-1,489	-18	-81	25	17	-105	-18	-
태국	-3,481	-10	-105	-11	-12	-72	-10	-
남아공	1,167	-4	-148	7	-62	-89	-4	-
필리핀	-1,096	13	-15	3	-31	-	1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11/25(수)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12/2(수)
회사채 (AA-)	2.43	2.15	2.16	2.17	2.17	2.16	2.16
회사채 (BBB-)	8.26	8.09	8.10	8.12	8.12	8.11	8.10
국고채 (3년)	2.10	1.77	1.78	1.79	1.78	1.77	1.76
국고채 (5년)	2.28	1.96	1.96	1.98	1.96	1.99	1.98
국고채 (10년)	2.60	2.26	2.24	2.27	2.25	2.28	2.26
미 국채 (10년)	2.20	2.23	2.23	2.22	2.21	2.14	-
일 국채 (10년)	0.33	0.30	0.30	0.31	0.31	0.30	-
원/달러	1,099.30	1,143.40	1,147.30	1,153.00	1,158.10	1,158.00	1,164.30
원/100엔	920.30	930.65	936.34	939.38	941.24	940.62	945.74
엔/달러	119.45	122.86	122.53	122.74	123.04	123.11	123.11
달러/유로	1.22	1.06	1.06	1.06	1.06	1.06	1.06
DDR3 1Gb (1333MHz)	1.34	1.01	1.01	1.01	1.01	1.01	-
DDR3 2Gb (1333MHz)	2.21	1.17	1.17	1.17	1.17	1.17	-
NAND Flash 16Gb (MLC)	2.18	1.48	1.48	1.48	1.48	1.46	-
CRB 지수	233.24	186.22	185.70	183.76	183.05	184.91	-
LME 지수	2,907.6	2,137.9	2,184.3	2,140.5	2,145.1	2,167.1	-
BDI	782	546	562	581	584	598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3.04	43.04	41.71	41.71	41.85	-
금 (달러/온스)	1,185.50	1,068.00	1,071.00	1,057.40	1,061.90	1,065.4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3	24	25	26	27
美> Williams 연준이사 연설(22일) 유럽> 11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2.8, 52.3, 52.3) 독일> 11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2.6, 52.0, 52.1)	美> 3분기 GDP QoQ (2.1%, 2.1%, 1.5%) 10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5.36, 5.40, 5.55) 독일> 3분기 GDP QoQ (0.3%, 0.3%, 0.3%) IFO 기업환경지수 (109.0, 108.2, 108.2)	美> 10월 내구재주문 (3.0%, 1.7%, -1.2%) 10월 신규주택매매(천건) (495, 500, 468)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91.3, 93.1, 93.1)		日>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2%, 0.0%)
30	1	2	3	4
세계> IMF 위안화 SDR 편입 결정 미팅 韓> 10월 광공업생산 YoY (1.5%, 2.2%, 2.8%) 독일> 11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4%, 0.2%)	韓> 11월 수출 YoY(1일) (-4.7%, -9.0%, -15.9%)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5일) (1.0%, 0.9%, 0.9%) 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48.6, 48.3, 48.3) 11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49.6, 49.8, 49.8) 美> 11월 ISM 제조업지수 (48.6, 50.5, 50.1) 유럽> 11월 마켓 제조업 PMI (52.8, 52.8, 52.8) 10월 실업률 (10.7%, 10.8%, 10.8%)	美> Yellen 연준 의장 연설 연준, 베이저북 발간 日> 11월 본원통화 YoY (32.5%, n/a, 32.5%)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30%, -0.20%) 10월 소매판매 MoM (n/a, 0.2%, -0.1%) 韓> 3분기 GDP YoY (n/a, n/a, 2.6%) 美> 10월 제조업수주 (n/a, 1.4%, -1.0%)	세계> OPEC 회의 美> 11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현명) (n/a, 200, 271) 11월 실업률 (n/a, 5.0%, 5.0%) 독일> 10월 공장수주 MoM (n/a, 1.2%, -1.7%)
7	8	9	10	11
독일> 10월 산업생산 MoM	中> 11월 수출 YoY 11월 수입 YoY 유럽> 3분기 GDP QoQ 日> 3분기 GDP QoQ 10월 BOP 경상수지	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10월 기계수주 MoM	韓> 금통위 금리 결정 中> 11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11월 신규대출 (~15일)	美> 11월 소매판매 추정 MoM 독일> 11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